

임원 후보 출마의 변(辯)

□ 출사표(출마의 변)

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한 회원번호 33번 김순미 입니다.

오늘의 협회는 지금까지 협회를 이끌었던 선배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세계 3대투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협회를 더욱더 발전시킬 좋은 일꾼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저에게 수석부회장의 책임을 맡겨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실현하겠습니다.

1. 늘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13년의 투어생활을 마치고 박사학위 취득과 대학 강단을 경험해 보았고 윈드웰이라는 중소기업과 유림골프클럽을 경영하면서 경영과 행정의 어려움도 몸소 체험해 보았습니다. 협회에서는 대의원4년, 이사8년, 감사3년, 지난 1년은 교육분과위원장을 경험하였습니다.

협회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협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분과업무 추진의 허약한 뿌리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미력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과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개선 방안에 노력하겠습니다.

2.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일 하겠습니다.

지금의 KLPGA는 운영 수입만으로도 얼마든지 유지발전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LPGA의 첫째 목적은 수익창출이 아닌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입니다.

협회의 본래 취지는 많은 회원들의 참여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지, 예를 들어 의료, 연금, 교육 혜택 등을 같이 소통하고 고민하겠습니다.

3. KLPGA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드림투어와 점프투어, 시니어투어, 주니어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와 대회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우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위상은 최고점에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회원들을 지도자로서 세계로 진출시켜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는 김순미 인생의 전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 입니다. 저 김순미는 우리 협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저의 목표입니다.

KLPGA 회원들은 한쪽은 웃고 또 다른 한쪽은 아프고 힘듭니다.

이제는 한 발짝 더 앞서가고 변화해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한국여자프로골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03월 11일

작 성 자 :

김 순 미

(인)